

# 축산사료의 수급과 가격변동



정 찬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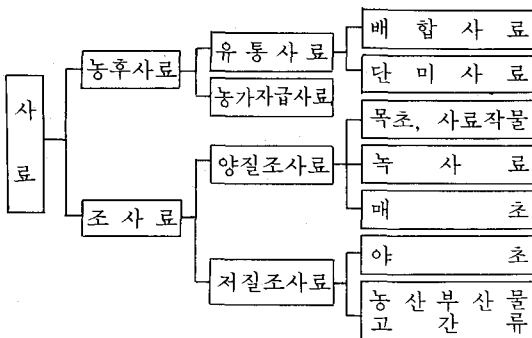
건대 축산경영학과 교수  
농업경제학 박사

## 1. 사료의 구분

가축사료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농후사료와 조사료로 대별된다.

농후사료는 유통사료와 농가자급사료로 나누어지고 조사료는 양질조사료와 저질조사료로 구분할 수 있다. 유통사료는 다시 배합사료와 단미사료로 구분되는데 단미사료에는 옥수수, 탈지강, 맥강, 대두박, 어분 등이 있으며, 이들 단미사료는 배합사료의 주원료로 사용되거나 그대로 유통된다. 양질조사료의 경우는 주로 재배에 의하여 생산되는 목초나 사료작물 등이며 저질사료는 야초나 농가부산물과 같이 단순노동

그림 1. 사료의 구분



## 축산 경영 · 경제 강좌 목차

- 축산경영의 목적
- 축산경영의 요소
- 축산경영의 형태와 종류
- 축산물 생산비의 구성과 평가방법
- 축산경영 조직
- 축산경영 규모
- 축산물시장 형태와 가격
- 축산부기 및 회계
- 축산물 유통
- 축산사료의 수급과 가격변동
- 축산경영의 분석과 계획

(계재순서는 변동될 수도 있음)

에 의해서 얻어지는 자급사료를 말한다.

## 2. 사료의 수급

사료는 축산물생산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조사한 1983년도 축산물생산비 조사보고에 의하면 총생산비중 사료의 비중은 육계 70.9%, 산란계 계란 67.1%, 육성계는 70.6%로 조사하였으며, 우유는 43.5%, 비육돈 52.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생산비 가운데 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료가격의 상승은 바로 축산물생산비의 상승에 따른 축산물가격상승에 직결된다. 특히 현재와 같이 축산물의 소비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사료수급의 안정화는 축산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총가격사료의 수급실적을 살펴보면 1975년 5,021천톤에서 1984년 11,890천톤으로 136%의 증가를 보였다. 이중 농후사료는 1,451천톤에서 6,742천톤, 조사료는 3,570천톤에서 5,145천톤으로 각각 365%, 44%의 증가를 보였다. 동기간에 농후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71%에서 57%로 감소한 반면에 조사료는 29%에서 43%로 증가하여 조사료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표 1에서의와 같이 조사료는 국내에서 자급되고 있는데 반하여 농후사료는 도입의존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배합사료를 살펴보면 국내산은 1975년에 489천톤에 1984년 1,851천톤으로 278%의 증가를 보인 반면 수입은 412천톤에서 4,134천톤으로 903%의 신장을 보였다. 따라서 국내 자급율은 54%에서 31%로 크게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축산물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국내 사료원료생산의 허부구조와 생산성이 약하여 앞으로 수입 농후사료의 해외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축산발전을 위하여 국내 사료 자원의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방안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농수산부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지 개발가능면적은 임야면적 6,571천 ha중에 1,070천 ha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15%나 되는 초지 조성가능면적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한계생산성이나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경제성을 고려할

표 1. 사 료 수 급 실 적

	합 계	농 후 사 료						조 사 료
		계	배 합 사 료				농 가 자 급 사 료	
			소 계	국 내 산	수 입	자 급 율		
75	5,021	1,451	901	489	412	54	550	3,570
76	5,157	1,885	1,382	661	721	48	503	3,272
77	5,658	2,398	1,899	862	1,037	45	499	3,260
78	6,738	3,223	2,693	1,098	1,595	41	530	3,515
79	8,123	4,439	3,880	1,311	2,569	34	559	3,684
80	7,559	3,994	3,462	1,410	2,052	41	532	3,565
81	7,299	3,974	3,491	1,420	2,071	41	483	3,325
82	8,378	4,923	4,420	1,518	2,902	34	503	3,455
83	10,673	6,473	5,852	1,752	4,100	30	621	4,200
84	11,890	6,742	5,985	1,851	4,134	31	757	5,148
85 (계획)	12,094	6,788	6,016	1,875	4,141	31	772	5,306

자료: 축산국 사료과

※ 농가자급사료 및 조사료는 '84축협사료 급여량 조사 적용

때는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초식 가축을 증식하기 위해서는 초지의 조성 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초지조성을 위한 현실적인 제약조건인 산림법, 개발제한, 금융지원부족, 기술저위 등을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청되고 있다.

연도별 초지조성사업현황을 살펴보면 1981년 3,007ha에서 1984년말에 75,805ha로 신장되었으나, 전체 초지조성가능면적의 7%에 불과하여 지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이미조성된 초지도 그 관리가 부실하여 막대한 국가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담리작 사료작물 재배실적은 1980년 37,696ha에서 1984년에는 77,199ha로 늘어났으며 정부는 1985년에 200,000ha를 책정하고 있으며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3. 사료원료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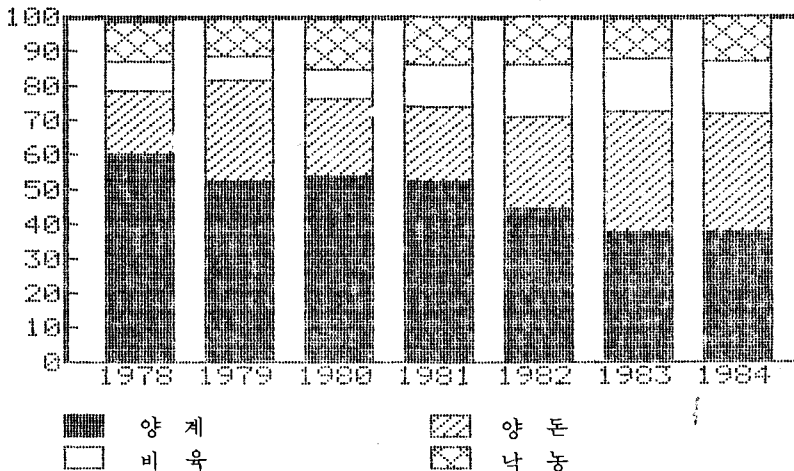
축산물수요의 급증과 국내사료자원개발의 부진에 따라 사료용 원료의 해외의존도가 심화되었고 사료곡물의 수입량이 해마다 늘어나 이에 대한 막대한 외화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사료용 원료의 수입량은 1970년에 31만톤에 불과하였으나 1983에는 494만톤으로 1,493%의 증가를 보였으며, 이에 지불된 외화도 동기간에 3억달러이던것이 49억 4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사료용 옥수수의 수입은 1976년에 666천톤이었으나 1984년에는 2,208천톤으로 230%가 늘어났으며, 대두의 경우도 동기에 100천톤에서 576천톤으로 476%가 신장되었다. 또한 1984년 전체 양곡수입 6,901천톤중에서 사료용이 4,149천톤이나 되어 6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매년 증가일로에 있는 사료곡물의 수입량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아서 1983년말 현재 약 88.5%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배합사료의 원료공급이 주로 미국으로부터 영세한 다수의 수입에이젠트에 의해서 조달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료산업은 사료원료수급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최선의 대책은 해외사료원료수입의존도를 최소화하는 한편 수입불가피한 사료원료의 수입을 효율화하며 수입비용을 최소로 하고 그 생산성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그림 2. 배합사료 생산비율

단위 : %



## 4. 배합사료의 생산과 가격변동

### 가. 배합사료의 생산

우리나라의 배합사료의 생산량은 1975년도에 901천톤이었던 것이 1984년에는 5,985천톤으로 564%나 신장되었다. 양계사료의 경우는 동기에 569천톤에서 2,064천톤으로 265%가 증가하였다.

배합사료가운데 양계사료의 생산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이 양돈, 비육, 낙농사료의 순이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양계용 사료생산비중은 1978년 60.5%에서 1984년 37.8%로 하락한 반면에, 동기에 양돈은 18.5%에서 24%로, 비육은 8.5%에서 15.5%로 높은 신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0년에 총 배합사료생산량은 22,447천톤이 생산되었는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양계용이 10,702천톤으로 전체의 47.7%나 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돈용이 29.2%, 육우용이 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배합사료는 1984년말 현재 79개 사료공장에 의해서 생산공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배합사료의 판매경쟁은 더욱 가속화 되어 중소규모의 사료공장경영 및 판매신장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나. 배합사료의 유통

배합사료는 전량이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배합사료의 유통유형은 그림 3에서와 같이 생산공장에서 양축가로 직접판매가 이루어지거나 중간단계인 위탁중개인, 대리점 또는 농협, 도·소매상을 통해 양축가에 판매되는 두가지이다.

근래에는 축산경영이 대규모화함에 따라비포장·대량판매로 양축농가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축협사료공장의 경우는 대부분 조합원들에게 직접거래하고 있다.

### 다. 배합사료의 가격변동

우리나라 배합사료의 가격결정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개입은 첫째로 배합사료 원료곡물의 수입방출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배합사료제조원가 인상요인을 적게 하려는 것이며, 둘째로 축산물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가격의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며, 끝으로 배합사료시장에 불완전경쟁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정부의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한국축산의 경제분석 p.203)

배합사료의 가격은 국제곡물시세의 변동과 환율연동제 및 금리의 유동화 여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양계용 배합사료의 kg당 가격변동을 살펴보면 그림 4에서와 같이 중병아리용은 1978년 102.55원에서 1984년 224.84원으로 119%, 산란중기용은 90.02원에서 215.62원으로 139.5%, 육계용은 119.76원에서 263.28원으로 119.8%가 상승하였다.

이처럼 지난 7년에 걸쳐 평균 125%정도의 가격상승은 안정된 가격변동추세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료가격의 상승억제는 근래에 일부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과 같이 배합사료의

그림 3. 배합사료의 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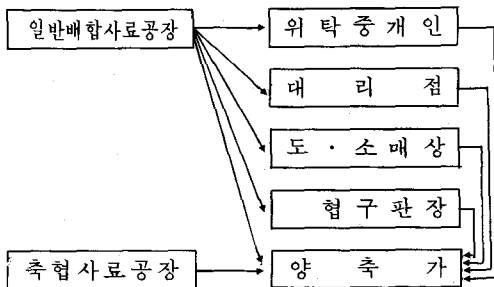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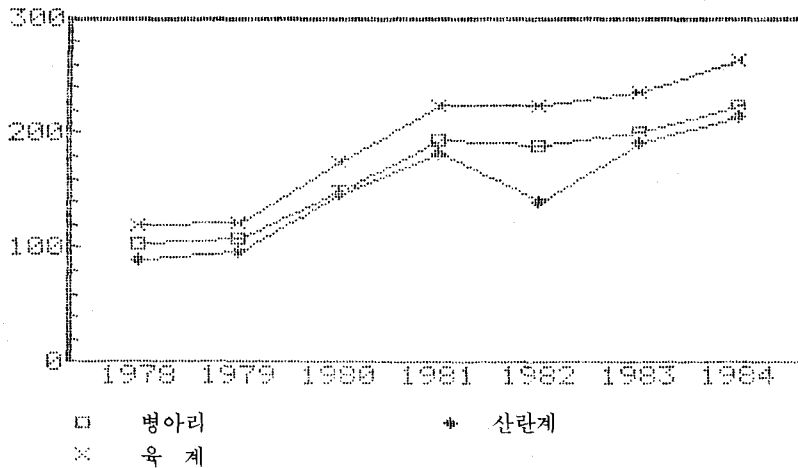


그림 4. 양계용 배합사료가격추이



품질의 저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위당 영양면에서 본다면 실질가격은 오히려 상승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사료원료가격, 자본재 및 노동비가 자유로이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인상요인을 사료 품질에서 보충하려면 저질원료의 투입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배합사료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은 배합사료의 생산량조절과 특히 이들 원료 도입의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축산물수급조절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5. 사료원료 수입대책

우리나라의 곡물도입은 우리와 농업생산여건이 유사한 일본, 대만 등과는 달리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왔으나 최근 정부는 수입곡물을 다양화하는 한편 수입선도 미국일변도에서 태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으로 수입정책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저렴하고 안정된 수입에 따른 사료가격안정을 위해서 매우 긍정적인 정책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도입창구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다원화되고 구매단체가 영세화되어 구매단가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고 국내 종합상사들에게 부여한 우대조치가 그 목적을 미·일 곡물상들의 가격조작으로 인한 손실이 매우 크다. 즉 1982년 4월 4일 축협중앙회 입찰시 쌍용이 카네마스 코오쇼보다 톤당 45센트나 비싸게 구매계약하여 총물량 5만톤에 대하여 2만2천달러를 낭비하였고, 동년 4월 28일 사료협회입찰때 삼성이 니찌맨보다 톤당 57센트나 높게 계약하여 총물량 4.5만톤에 대한 2만5천달러를 낭비하는 등 단 2회의 입찰에 4만7천달러를 낭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983년 도입주체별 실적을 살펴보면 축협은 월평균 10만톤, 사료협회는 7만톤을 상회하여 경제성이 있는 반면에 제일제당은 월평균 도입규모가 2만1천톤이었으나 최소규모는 8천톤으로 비경제적 영세도입규모였다. 도입규모의 영세화는 곡물시장활동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정보활동비, 기타 구매제비용 즉 신용장 개설비를 포함한 은행제비용과 도착후 조작제비용 등에 있어서도 비경제적으로 단위 비용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어 대규모 수송에 의한 화

폐적 절감효과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우리나라가 국제곡물시장의 판매자독점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제도면에서 곡물수입의 자율화보다는 수요자 독점이나 과점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즉 현행과 같은 수요자의 경쟁체제는 매매자 독점 체제시장에서 항상 최소한 독점이윤만큼 강요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독점적인 곡물 「메니저」에 대한 대항력을 강화하고, 현행 수요자경쟁체제하에서는 곡물수입과 관련된 모든 업무의 전문화가 어렵다는 등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곡물수입업무만을 전담하는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곡물수입 전담기구의 설립은 국제곡물거래에서 능동적이며 기동성 있는 업무추진을 가능케 하며 국제곡물시장 분야의 전문요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계속 지원육성할 수 있어서 업무의 적극적인 개발 및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곡물수입 전담기구의 설립을 그 기능면에서 고찰해 보더라도 곡물무역 전담기구로서 역할

을 증대시킴으로써 곡물수입과 관련한 소위 국가·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담기구의 활용은 곡물수입과 관련된 제반 수입금융업무나 현지재고관리 및 판매 등에 있어서 수출입과 관련된 제반 편의제도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이 곡물수입창구의 경쟁적인 다변화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해외경쟁력의 약화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곡물수입 전담기구의 설립은 무역지향적인 업무의 확대개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곡물수입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곡물수입 전담기구는 그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해외곡물자원을 안정적으로 도입·확보하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소수의 곡물수입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단순한 곡물수입 대행업무의 성격을 탈피하고 적극적으로 장단기대책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기구로서의 육성·발전이 가능하다.\*